실록의궤 선양에 불교-지자체 힘 합친다

선양회·강원도·평창군 MOU 체결
실록의궤 선양사업에 적극 협력
선양회, 지역 축제 등 사업 추진
'사명당과 오대산 사고' 주제 세미나
정념 스님 "선양사업 첫 걸음"

춘천=신중일 기자



(사)조선왕조실록의궤선양회는 8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조선왕조실록의궤 선양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심재국 평창군수, 김진태 강원도지사, 조선왕조실록의궤선양회 이사장 퇴우 정념 스님.

지난해 110년 만에 환지본처한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의 선양사업을 위해 불교계와 지자체가 힘을 합치기로 했다.

(사)조선왕조실록의궤선양회(이사장 퇴우 정념 스님, 이하 선양회)는 8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조선왕조실록의궤 선양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선양회 이사장 퇴우 정념 스님, 김진태 강원도지사, 심재국 평창군수와 상원사 주지 해량 스님, 이욱환 평창문화원장, 심천섭 강원도 문화유산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선양회와 강원도, 평창군은 각 기관·단체는 협약 체결과 함께 지역의 문화자산으로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선양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수행하는 한편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퇴우 정념 스님은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의 환지본처에는 지역과 불교계가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온 귀중한 문화유산을 어떻게 선양하고 보존할 것인지가 숙제가 됐다"면서 "오늘 협약이 조선왕조실록·의궤의 가치를 전세계에 알려 강원도 평창이 세계기록문화의 도시임을 알리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태 도지사는 "현재 강원도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의궤에 기록된 왕실 행사를 재현하는 행사를 기획 중이다. 무엇보다 조선왕조실록·의궤의 가치를 바로 알리고 선양하는 데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재국 군수도 "조선왕조실록·의궤가 평창군으로 환지본처하고, 오늘 선양사업을 위해 협약까지 맺게 돼 기쁘다. 평창군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의궤의 선양이 한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큰 사업이라 생각한다. 선양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왕조실록·의궤 선양사업은 지난 3월 설립된 선양회를 중심으로 '조선왕조실록·의궤 문화축제'를 비롯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학술연구, 홍보사업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퇴우 정념 스님은 "조선왕조실록·의궤 제자리 찾기 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한 '조선왕조실록·의궤 범도민환수위원회'를 홍보와 교육 등을 총괄하는 '선양회' 체제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선양사업 추진 체제를 갖췄다"며 "오는 10월 지역문화축제를 비롯해 조선왕조실록·위궤의 가치를 향유하고 확산시킬 다양한 선양사업들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대산 사고의 역할을 조명하는 연구도 이뤄진다. 퇴우 정념 스님은 "조선 후기 5대 사고 중 하나인 '평창 오대산사고'의 의미를 조명하는 연구를 추진한다"면서 "오는 10월 4일 오대산 사고가 설치되는 데 있어서 사명대사의 역할을 집중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수위에서 전환된 선양회는 지난 3월 28일 월정사에서 발기인 총회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을 이사장으로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국형사 주지 인광 스님 △고광록 법무법인 율곡 대표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사장 △김용래 평창군이장협의회장 △김풍기 강원대 교수 △백현주 전 국악방송 사장 △이욱환 평창문화원장 △지형근 한강시원지체험관 관장 △최상현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이사로, 상원사 주지 해량 스님, 고은채 글찬마루 대표가 감사로 각각 선임됐다.

봉은사·도선사, 방생으로 생명가치 되새기다

8월 19, 21일 담양 용흥사서
'백중회향 생명나눔 방생법회'





백중을 맞아 서울 봉은사(사진 왼쪽)와 도선사(사진 오른쪽)가 담양 용흥사에서 '백중회향 생명나눔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서울 봉은사와 도선사가 담양 용흥사(주지 덕유 스님)에서 방생법회를 열고 생명나눔의 가치를 되새겼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갑진년 백중 회향을 맞아 8월 19일 전남 담양 용흥사에서 '백중회향 생명나눔 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기념식과 천도재, 물고기 방생으로 진행돼,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법회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용흥사 주지 덕유 스님 등 스님 20여 명과 김한종 장성군수, 정광선 담양 부군수 등 1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행사는 △헌공의식 △삼귀의 △찬불가 △육법공양 △봉은사 연합합창단 자비방생의 노래 △무공 스님 환영사 △원명 스님 인사말 △축사 △문화공연 등으로 이어졌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방생법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늘 건강과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용흥사는 조선 영조 대왕이 기도를 통해 태어난 유서 깊은 도량으로, 복덕과 영험한 기운이 남다른 곳이다"며 "오늘 동참한 모든 분들이 좋은 기운을 받아 가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서울 도선사(주지 태원 스님)은 8월 21일 담양 용흥사를 방문해 '백중회향 방생대법회'를 개최했다.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방생법회는 상단기도에 이어 천도의식, 물고기 방생으로 진행됐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용흥사 방생에 참여해 주신 신도들에게 감사하다"며 "더운 날이지만 오늘 참여한 공덕으로 늘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길 발원한다"고 격려했다.

용흥사 주지 덕유 스님은 "불과 20여 년 전 이곳은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찰이었지만,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원력으로 현재 많이 복원됐다"며 "큰스님들을 많이 배출한 영험한 도량이니,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흥사를 찾아 방생대법회를 봉행한 봉은사와 도선사는 신도들이 정성을 모은 공양미 300석(10kg 300포)을 담양군에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육군 제35사단 군장병 수계법회

8월 17일 호국충경사서
수계장병 350여 명 동참



선운사는 8월 17일 호국충경사 대웅전에서 육군35보병사단 장병들을 위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선운사에서 호국장병들을 위한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8월 17일 호국충경사 대웅전에서 전북지역 향토사단 육군 35보병사단(사단장 김광석 소장, 이하 35사단) 장병들을 위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 전계사로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교수사로 선운사 강주 혜수 스님, 갈마사로 내장사 주지 대원 스님이 나서서 35사단 장병 350여 명에게 삼귀의계와 신도오계를 설했다. 장병들은 스님이 계목을 설할 때마다 큰 소리로 계율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원했다.

전계사 경우 스님은 "보살계경에 따르면 삼귀의와 오계를 수지한 사람은 부처님과 보살들이 보호하고 살펴주신다"며 "수계제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계를 지킴으로 안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병영생활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법회에 참석한 서성진 일병은 "불교를 잘 모르다가 군에 입대해서 불교를 알고 수계까지 받게 돼 감사하다"며 "선운사의 군장병에 대한 큰 관심을 군 생활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 문수사 대웅전 보물지정서 전달식

8월 16일 문수사 대웅전 앞서



고창 문수사는 8월 16일 경내 대웅전 앞에서 '고창 문수사 대웅전 보물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문수도량 고창 문수사(주지 태효 스님)가 경내 대웅전 보물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고창 문수사는 8월 16일 경내 대웅전 앞에서 '고창 문수사 대웅전 보물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대웅전을 보존·활용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문수사 주지 태효 스님(중앙종회의원)은 참석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사부대중에게 감사를 전하며 "소중한 성보가 후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문수사 대웅전의 보물 지정을 축하하기 위해 원근 각지에서 와 주신 스님들께 감사하고 보물지정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태효 스님이 문수사 주지가 되신 이후로 문수사가 더욱 발전하고 있어 새삼 인연의 지중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보물지정서를 전달하고 "문수사 대웅전을 국가유산 보물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여러 가지 보완작업을 거쳐 국가유산청을 대신해 보물지정서를 전달하게 됐다"며 "문수사의 천연기념물 단풍나무숲, 문수사 대웅전 삼존불 등 문수사의 많은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달하 대종사 "돌아보니 불국토"

수덕사 하안거 해제법회 봉행



갑진년 하안거 해제를 맞아 덕숭총림 방장 우송 달하 대종사가 법어를 내렸다.

조계종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가 8월 17일 경내 대웅전과 앞마당에서 하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덕숭총림 방장 우송 달하 대종사,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불교학술원 원장 정묵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본말사 스님을 비롯해 덕숭총림 소속 사찰에서 3개월간의 정진을 마친 156명의 선원대중과 외호대중이 동참했다.

우송 달하 대종사는 해제 법문에서 "돌아보니 불국토요, 앉으나 서나 대적삼매, 눈 뜨면 지심바다다"며 "순간순간 새 천지요, 처처가 바라밀이로다"고 법어를 내렸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백양사, 광주정광중에 팥빙수 나눔

8월 16일 600여명에 전달



백양사가 무더위 속에 개학을 맞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시원달콤한 팥빙수를 전달했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8월 16일 (사)자비신행회(상임이사 김삼옥)와 손잡고 불교종립 광주정광중학교(교장 정경금) 소속 6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여름철 별미인 팥빙수를 제공하고 격려했다. 이날 학교 로비에서 나눠줄 예정이었던 팥빙수는 무더위와 소나기를 우려해 급식실에서 진행됐다.〈사진〉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무더위 속 개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스님들이 직접 만든 팥빙수를 전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무더위를 날리고 힘내서 공부 열심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주 금선암, '전주함께라면' 자비나눔

8월 17일 라면 100박스 전달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 스님)이 백중을 맞아 '전주함께라면' 사업에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전주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과 신도들은 8월 17일 백중기도 기간 동안 우란분절의 참 뜻을 기리기 위해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는 '전주함께라면' 사업에 라면 100박스를 전달했다.〈사진〉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위해 전액 기부로 진행되는 '전주함께라면' 사업에 동참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신도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모은 라면이 누군가에게 작은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라고 '전주함께라면' 사업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참좋은우리절, 파두마 스님 환영법회

8월 18일 대법당서…전북 스리랑카인 지원 예정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 스님)이 8월 18일 경내 대법당에서 스리랑카 파두마 스님 환영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환영법회에는 스리랑카 파두마 스님을 비롯해 소비타 스님, 참좋은우리절 태산 스님 등과 차마라 반티 전북스리랑카인회장, 김유나 (사)착한벗들 사무국장, 전북지역 스리랑카 노동자, 이주민과 가족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사진〉

참좋은우리절은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스리랑카 불자를 위한 영적, 심리적 안식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파두마 스님은 앞으로 참좋은 우리절에 상주하며 매주 스리랑카인들을 위한 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모악산 인문학교실' 개설

9월 7일까지 강좌 진행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가 8월 17일 경내 보제루에서 전통산사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모악산 인문학교실'을 열었다.〈사진〉

'모악산 인문학 교실'은 금산사가 보유하고 있는 방등계단(보물 제26호), 석등(보물 제828호), 대장전(보물 제827호) 등 국가유산이 신앙의 대상을 넘어서 현대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지를 인문학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은 "모악산 인문학 교실을 통해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그 그릇을 채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